

조선 왕실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선정에 대한 고찰

이재완 예천박물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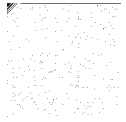
a1111@korea.kr

국문초록

2020년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신청된 세종대왕자 태실을 검토했던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는 성주 태실의 단독 등재 방식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포한 조선 왕실 태실로 확대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대상에 해당 지역의 태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동산 가운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산의 보호와 관리, 진정성, 완전성의 조건을 토대로 연속 등재 대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를 등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화재인 태실 22개소가 그 대상이 된다. 둘째,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봉태실로 한정하고, 연구조사와 학술고증을 통해 복원과 문화재 추가 지정이 가능한 태실을 그 대상으로 본다. 셋째, 조선 왕실 태실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일제강점기 이왕직에 의해 조성된 서삼릉과 표본으로 이설한 성종태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이 많으며, 이 가운데에는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설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태실 이설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추가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도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과 지정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개별 태실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진정성 있는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한국에서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을 총칭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2020년 1월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는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록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기준(iii)과 관련해 ‘신청 유산이 국가 의례화된 장태문화의 문화적 전통을 입증하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였다.¹ 상기 의견은 신청 유산이 세계유산의 OUV에 부합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만의 특성이기보다 조선 왕실 태실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유산 전체(예, 한국 태실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² 이러한 연속 등재는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조선왕릉’, ‘산지,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등 2000년부터 주로 한국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나아가 연속 등재는 여러 자치단체로부터 관심과 협력을 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자치단체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선 왕실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실(胎室)이란 왕실 자손의 출생에서 생긴 태를 일정한 의식과 절차인 장태(藏胎)의례를 통해 조성한 석물을 말한다. 장태는 세계 여러 문화집단에서 관찰되는 인류 보편적인 문화로 알려져 있

다.³ 한국의 일반 민간에서는 태를 길지에 묻거나, 태우거나, 물에 띄워 보내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⁴ 특히, 조선 왕실에서는 전국 각지의 길지를 찾아 태봉(胎峯)을 선정하였고, 이곳 돌혈(突穴)에 해당하는 자리에 좌향을 정하여 태를 묻고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특별하게 관리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의궤, 태봉등록, 태봉도 등 다양한 기록물도 작성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지배체제의 변화와 총독부의 고적 조사사업에 의해 조선 왕실의 태실이 파괴되었다. 그 이유는 이왕직이 전국에 흩어진 조선 왕실 태실에 매안(埋安)된 태향아리와 태지석을 수습한 후 서삼릉에 집장(集藏)했고, 이 과정에서 태실 석물들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후 원 태실지에 남아 있던 석물마저도 오랜 기간 방치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도난당하거나 파괴되었다. 조선 왕실 태실 유적 일부는 1970년대 이르러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태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태실의 전수조사, 발굴조사, 문화재 지정, 태실 관련 유물의 전시, 의례 재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예천군에서도 2012년부터 문종과 사도세자가봉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염두에 두고 발굴조사, 태실 복원 및 종합 정비개발 연구용역, 학술총서 발간 등을 추진했다. 당시 태실 소재 지역의 학예사들은 가봉태실이 세계유산 연속유산으로서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담론을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사천시, 예산군, 서산시, 대구시, 충주시, 영월군, 보은군 등에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2014년 예천군의 태실 복원과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연구 과정에서는 국내 대부분의 가봉태실이 원위치 이탈, 미복원, 성급한 복원 등의 문제를

1 문화재위원회, 2020,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p.31.

2 문화재위원회, 2020, 위의 글, p.34.

3 박충환, 2015, 「인류학의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본 장태문화(藏胎文化)」, 『嶺南學』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pp.299~305.

4 이재완, 2016, 「예천지역 왕실의 태실조성과 지역사적 의의」, 『문화재』 49(2), 국립문화재연구원, p.76.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일부 태실은 민묘나 공장이 들어서 단기간 내 원 태실지에 이전 복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다른 일부 태실은 자치단체의 관심 저조로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상태였다. 따라서 태실 유적은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토지매입, 발굴, 복원과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유산이었다.

조선 왕실 태실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전까지 미미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소수의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야이다. 그런 이유는 일제강점기 훗철 이후 오랫동안 방치와 무관심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 태실에 관한 연구는 지역 단위의 조사와 발견에 따른 개별 태실 연구⁵ 등이었다. 1999년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선 왕실 태실을 정리한 연구서 발간을 시작으로,⁶ 최근에는 풍수 관련 연구,⁷ 태실 출토 유물의 양식변천 연구⁸ 등이 진행되는 정도이다. 더구나 일부 태실에는 태봉도와 의궤를 비롯한 관련 기록물과 태향아리, 지석 등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의 태실은 관련

자료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조선 왕실 태실은 향후 개별 태실에 대한 추가 연구와 이를 통한 보다 진전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 연구는 최근까지 조사된 조선 왕실의 태실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조선 왕실 태실의 현황을 토대로 세계유산의 연속유산 등재가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훼손되거나 파괴된 문화유산의 진정성 있는 복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조선 왕실 태실에 대해 논의하되 주로 태실의 개념과 종류를 간략히 기술하고, 태실 관련 지정 문화재 현황, 가봉 태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주요 조건을 기준으로 연속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을 제시해볼 것이다. 이 글에서 대상이라는 것은 태실의 명칭이 아니라 충족 대상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 5 최호림, 198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일연구」, 『한국학논집』 7,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김영진, 1994, 「충주 경종태실 소고: 변작과 복원을 중심으로」, 『박물관보』 7, 청주대학교박물관; 김영진, 1997, 「청원 산덕리 태실 발굴조사 보고」, 『박물관보』 10, 청주대학교박물관; 홍성익, 1998, 「강원지역 태실에 관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김만중, 2001, 「강릉 모전리 정복태실비와 성종의 자녀에 대하여」, 『박물관지』 7, 강원대학교박물관; 심현용, 2001, 「울진지역 태실에 관한 시고」, 『고문화』 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홍성익, 2004, 「원주시 대덕리 태실에 대하여」, 『강원문화사연구』 9,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심현용, 2004, 「광해군태실에 대하여」, 『강원문화사연구』 9,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심현용, 2005, 「대구 광해군태실 고」, 『향토문화』 20, 대구향토문화연구소; 심현용, 2005,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연구」, 『박물관연보』 2, 강릉대학교박물관; 홍성익, 2008, 「홍천 공작산 정희왕후 태실지 위치비정」, 『강원문화사연구』 1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박채은, 2008, 「성종대왕과 후궁 명빈김씨: 경숙옹주 태실과 관련하여」, 『울산문화연구』 1, 울산문화연구회; 심현용, 2010, 「성주지역 태실과 생명문화관 전시방안」,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관 콘텐츠 및 전시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성주군: 김태일, 2012, 「조선 초기 왕실의 태실 연구: 경북 성주지역 태실 21기를 중심으로」, 『백악논총』 7, 동방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심현용, 2012,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문화재』 45(3),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재완, 2013, 「경북 예천지역 태실에 관한 일고찰」, 『고고문화』 6, 국립고궁박물관; 심현용, 2014, 「조선 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조성과정과 구조 복원」, 『영남고고학』 68, 영남고고학회; 이재완, 2016, 「예천지역 왕실의 태실조성과 지역사적 의의」, 『문화재』 49, 국립문화재연구원.
- 6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편, 1999, 『조선의 태실』 I · II · III;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9,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8, 『조선 왕실의 태봉』, 국립문화재연구소.
- 7 박대윤, 2010, 「조선 성종 태봉의 풍수지리적 특징 비교: 초장지와 이장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대윤, 2012, 「조선시대 국왕태봉의 풍수적 특징 연구」, 『한국문화』 59,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8 윤석인, 2000, 「조선왕실의 태실석물에 관한 일연구: 서삼릉 이상 원 태실을 중심으로」, 『문화재』 33, 문화재관리국; 심현용, 2006, 「조선시대 아기태실비의 양식과 변천」, 『미술자료』 75, 국립중앙박물관; 윤석인, 2010, 「조선왕실 태향아리 변천 연구」, 『고고문화』 7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심현용, 2010, 「조선왕실 태실석함의 현황과 양식변천」, 『문화재』 43(3), 국립문화재연구소.



II. 조선 왕실 태실 유산의 현황

조선 왕실의 태실은 아기태실과 가봉태실로 구분된다. 아기태실은 왕실 자손의 태를 묻고 조성한 시설물이라면, 가봉태실은 왕이나 왕비, 추존왕을 대상으로

로 그 격식에 맞게 석물을 추가한 것을 뜻한다. 2023년 3월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 왕실의 태실은 148개소로, 아기태실 120개소, 가봉태실 28개소이다.⁹ 앞장에서 서술했듯이, 1928~1929년 이왕직이 어태(御胎)를 서울로 봉출하여 1930년 서삼릉으로 이봉하는 과정에서 그

표 1 2023년 3월 31일 현재 태실 관련 문화재 지정 현황(문화재청 www.cha.go.kr(검색일 2023.3.31.))

순번	지정명	유형	명칭	태주	지정일자
1	국가지정	사적	고양 서삼릉		1970-05-26
2	국가지정	국보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미상	1974-07-09
3	시도지정	기념물	사천 단종 태실지(인성대군태실임)	인성대군	1975-02-12
4	시도지정	기념물	밀양 조선 성종 왕녀 태실	성종 왕녀 2명	1975-02-12
5	시도지정	기념물	사천 세종대왕 태실지	세종	1975-02-12
6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보은 순조 태실	순조	1975-08-20
7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충주 경종 태실	경종	1975-08-20
8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원주 태장동 왕녀복란 태실비	왕녀 복란	1982-11-03
9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선조대왕 태실비	선조	1984-05-17
10	국가지정	보물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인종	1984-07-05
11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명봉사 문종대왕 태실비	문종	1984-12-29
12	시도지정	기념물	청주 영조 태실	영조	1984-12-31
13	시도지정	민속문화재	예종대왕태실 및 비	예종	1986-09-08
14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태조대왕 태실	태조	1989-04-20
15	국가지정	보물	백자 태항아리	미상	1991-01-25
16	국가지정	보물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광해군	1991-01-25
17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태실(석함)	경평군	1991-10-24
18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공주 숙종대왕 태실비	숙종	1992-12-08
19	시도지정	기념물	청주 산덕리 태실	인성군	1993-06-04
20	국가지정	보물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미상	1993-09-10
21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영월 정종대왕태실 및 태실비	정종	1995-09-18
22	국가지정	사적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김유신	1999-06-11
23	국가지정	사적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세조	2003-03-06
24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경숙옹주태실 및 비	경숙옹주	2004-12-16
25	시도지정	기념물	월산대군 이정 태실	월산대군	2010-03-25
26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사이부대호	미상	2010-09-20
27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예천 명봉리 경모궁 태실 감역 각석문	장조	2014-10-20
28	시도지정	기념물	예천 문효세자 태실	문효세자	2016-04-28
29	시도지정	기념물	예천 폐비윤씨 태실	폐비윤씨	2016-04-28
30	국가지정	보물	조선왕조의궤(2016-4)	세종, 단종	2016-05-03
31	국가지정	보물	조선왕조의궤(2016-11)	영조	2016-05-03
32	국가지정	보물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명종	2018-03-26
33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분청사기 인화문 경주부장흥고명 삼이호	미상	2021-06-10
34	국가지정	보물	영천 인종대왕 태실	인종	2022-08-26
35	국가지정	보물	장조 태봉도	장조	2022-08-26
36	국가지정	보물	순조 태봉도	순조	2022-08-26
37	국가지정	보물	헌종 태봉도	헌종	2022-08-26
38	시도지정	기념물	대구 광해군 태실	광해군	2022-11-10

9 심현용, 2021, 「조선시대 태실제도」,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민속원, pp.57~66.

대상이었던 54개소의 태실지는 훼손되었다.¹⁰ 이후 관리주체의 부재로 전국에 산재한 태실들도 도굴, 도난, 방치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1970년 고양 서삼릉이 사적으로 지정된 후 최근까지 다수의 태실 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23년 3월 31일 현재 태실 관련 지정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은 태실 관련 지정 문화재 38건의 내용이다. 조선 왕실 태실 관련 지정 문화재의 유형은 가봉태실(태실지 포함), 아기태실, 태향아리와 태지석, 의궤, 태봉도, 기타 유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가봉태실 15건, 아기태실 7건, 태향아리와 태지석 6건, 태봉도 3건, 의궤 2건 순이다. 그리고 기타 유적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이봉된 조선 왕실 태실의 집장처인 서삼릉, 인종 태실 수호 사찰의 건축물, 태실 석함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태실 관련 문화재 가운데 14건이 2010

년부터 문화재로 신규 지정되거나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문화재 지정 양상은 지역사회에서 태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선 왕실 태실 관련 지정 문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가봉태실이다. 그러나 2023년 3월 31일 현재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가봉태실은 사천의 단종 태실(인성대군 태실)을 제외한 15개소이며,¹¹ 아기태실은 7개소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강점기 훼손된 후 미복원되었거나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가봉태실을 조사한 논문과 예천군에서 가봉태실을 현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가봉태실이 원래의 위치를 이탈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¹² 조선 왕실 가봉태실의 위치를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2015년 조사된 조선 왕실 가봉태실(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pp.136~138; 예천군, 2015, 『명봉리 조선왕실 태실유적 복원 기본설계 및 종합정비 계획』, pp.104~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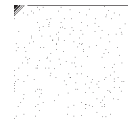
여: O, 부: X

번호	태주	출생일	장태일 (아기태실)	가봉일 (가봉태실)	원위치/ 현위치	원위치 여부	문화재 지정 여부	복원 여부
1	태조	1335.10.11		1393.1.7 / 태조 2	충남 금산군 마전리 산 4 / 금산군 마전리 산 1-86	×	○	○
2	정종	1357.7.1		1399 / 정종 1	경북 김천시 운수리 산 84-2 · 산 84-3		×	×
3	태종	1367.5.16		1401.10.8 / 태종 1	경북 성주군 대봉2리 산 65		×	×
4	세종	1397.4.10		1419 / 세종 1	경남 사천시 은사리 산 27		○	×
5	소현 왕후	1395.9.28		1438 / 세종 20	경북 영주시 배점2리 산 22-2		×	×
6	문종	1414.10.3	1439	1450 / 문종즉위년	경북 예천군 명봉리 산 2	○	○	○
7	단종	1441.7.23	1441.윤11.26 (1차)/ 1451.1~3 (2차)	1452~1455 / 단종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2리 산 10	○	×	×
				1699~1719 / 숙종	경남 사천시 은사리 438	인성 대군 태실임	인성 대군 태실임	인성 대군 태실임
8	세조	1417.9.24	1438.3.10	1462.8~9 / 세조 8	경북 성주군 인촌2리 산 8	○	○	○
9	정희 왕후	1418		1455~1468 / 세조	강원도 홍천군 덕치리 산 1		×	×

10 『매일신문』과 『매일신보』 1928년 9월 10일 자에는 전국 명산에서 태실 29기가, 『매일신보』와 『동아일보』 1929년 3월 1일 자에는 39기가 경성(서울) 봉상소로 옮겨졌다고 하였다. 이후 李王職의 『胎封』(1928~1934) 『胎室埋安時陪進次弟』에 의하면 1930년 4월 15~17일에 49위의 태가 서삼릉으로 이송되었다고 하였다(심현용, 2021, 『예천 문종과 장조 태실의 구조와 복원』,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민속원, p.210).

11 사천의 단종 태실지는 인성대군의 태실로 밝혀졌다(심현용, 2012,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문화재』, 45(3), 국립문화재연구소).

12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pp.136~138. 참조: 예천군, 2015, 『명봉리 조선왕실 태실유적 복원 기본설계 및 종합정비 계획』 I, pp.104~106.



번호	태주	출생일	장태일 (아기태실)	가봉일 (가봉태실)	원위치/ 현위치	원위치 여부	문화재 지정 여부	복원 여부
10	예종	1450.1.1	1462.10.15	1578.10.2 / 선조 11	전북 완주군 덕천리 산 158 / 전주시 풍남동 3가 102	×	○	○
11	성종	1457.7.30	1458.3.1	1471 / 성종 2	경기도 광주시 태전1동 265-1 /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	×	○
12	폐비 윤씨	1455.윤6.1		1478.11.12 / 성종 9	경북 예천군 내지리 산 81	○	○	○
13	중종	1488.3.5	1492.9.7	1507 / 중종 2	경기도 가평군 상색1리 산 112	○	×	×
14	인종	1515.2.25	1521.1.17	1546.5 / 명종 1	경북 영천시 치일리 산 24	○	○	○
15	명종	1534.5.22	1538.2.21	1546.10 / 명종 1	충남 서산시 태봉리 산 6-2	○	○	○
16	선조	1552.11.11		1570.10.21 / 선조 3	충남 부여군 청남리 산 227	×	○	×
17	광해군	1575.4.26	1581.4.1	1609.11 / 광해군 1	대구광역시 연경1동 산 135 · 산 136-1	○	○	×
18	인조	1595.11.7		1626.8.1 이후	황해도 황주군 남본정		×	
19	현종	1641.2.4	1647	1681.10 / 숙종 7	충남 예산군 황계리 189-20 · 189-21		×	
20	숙종	1661.8.15	1661.12.25	1683.10.15 / 숙종 9	충남 공주시 태봉1동 산 64-9		○	×
21	경종	1688.10.28	1689.2.22	1726.9.8 / 영조 2	충북 충주시 괴동리 산 34-1	○	○	○
22	영조	1694.9.13	1695.1.28	1729.10.14 / 영조 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 산5번지 / 산6-1번지	×	○	○
23	정조	1752.9.22	1753.1.21	1801.10.27 / 순조 1	강원도 영월군 정양리 산 210-1 / 영월군 정양리 산 133 · 산 134	×	○	○
24	순조	1790.6.18	1790.8.12	1806 / 순조 6	충북 보은군 사내리 산 1-1	○	○	○
25	현종	1827.7.18	1827.11.11	1847.3.21 / 현종 13	충남 예산군 옥계2리 산 6-2	×	×	×
26	순종	1874.2.8	1874.6.8		충남 홍성군 태봉리 366-38	×	×	×
27	장조	1735.1.21	1735.윤4.4	1785.3 / 정조 9	경북 예천군 명봉리 산 2	○	×	○
28	문조	1809.8.9	1809.12.21	1836 / 현종 2	경기도 포천시 성동2리 451-18 / 포천시 성동5리 640-1	×	×	×

〈표 2〉와 같이 조선 왕실 가봉태실은 28개소이며, 연산군, 효종, 철종, 고종의 태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¹³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가봉태실은 2023년 3월까지 13개소만이 복원되었고 나머지 15개소는 복원되지 않았다. 나아가 일부 가봉태실은 원 태실지가 아닌 곳에 복원되거나 이설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종의 가봉태실은 일제에 의해 표본으로 삼고자 창덕궁 비원에 이설한 것이며,¹⁴ 예종의 가봉태실은 구이초등학교에 옮겨져 있던 것을 1970년 전주 경기전으로 옮겨 복원한 것이다.¹⁵ 또한 태조·영조·정조 태실은 원 태실지에 민묘나 광산이 들어서 인근 위치에 이설된 사례이다. 따라서 조선 왕실 28개소의 가봉태실 8개소는 당초의 태실지에 복원된 것이나, 5개소는

원 태실지와 다른 곳에 조성되었다. 나아가 나머지 가봉태실 15개소는 미복원된 상태이다.

가봉태실의 관리 상황은 아기태실에서도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아기태실 120개소가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7개소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 문화재 가운데 원태실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경숙옹주 태실, 조선 성종 왕녀 태실, 월산대군 태실, 문효세자 태실, 인성군 태실 5개소이며, 나머지는 다른 장소에 있다. 특히, 인성대군 태실에는 민묘가 들어섰으며, 원주 태장 왕녀 복란 태실은 개발 과정에서 태봉이 훼손되었다.

최근 태실이 위치한 자치단체에서는 발굴조사, 정밀지표조사 등을 통해 태실 석물을 수습하고, 이를 토대로 학술연구를 진행하여 복원과 문화재 지정을 추진

13 심현용, 2016, 『한국의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pp.189~190.

14 「新設할 標本은 成宗의 胎封」, 『每日新報』, 1928.09.10.

15 김희태, 2021, 『조선왕실의 태실』, 휴엔스토리, p.81.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문종·장조·폐비윤씨의 가봉태실과 문효세자 아기태실 등이 있다. 이들 태실은 발굴조사, 정밀지표조사, 종합 정비계획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증작업을 진행한 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거나 원태실지에 복원한 것이다.¹⁶ 또한 2018년 대구시 북구에서는 광해군 태실지를 발굴하여 2022년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하였으며,¹⁷ 2020년 청주시에서는 영조 태실지의 시굴조사를,¹⁸ 2022년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성종 태실지에 대한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원 태실지에 복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¹⁹ 이처럼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에 소재한 태실을 학술적으로 고증하여 원 태실지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 왕실 태실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최근에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를 통해 차츰 복원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태실이 설치되는 장소는 태봉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세종실록』에는 육안태지법(六安胎之法)을 소개하면서, ‘풍수적으로 좋은 태실터를 만나면 15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좋은 터는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는 듯하여야만 길지(吉地)가 된다’라고 하였다.²⁰ 그리고 『문종실록』에도 태실은 왕실 자손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 조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¹ 이에 대해 심현용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태실 모두가 돌혈에 입지한다고 했다.²² 이 외에 태실 조성에서는 좌향도 중요한 사항이었다.²³ 따라서 조선에서는 왕실 자손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 풍수적으로 좋은 땅으

로 인식된 태봉 돌혈에 태실을 조성하면서 그 좌향까지도 세심하게 다루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이왕직은 태향아리와 태지석 등을 서삼릉으로 이봉하면서 원 위치의 태실 석물들을 훼손하였다. 이후 조선 왕실 태실은 석물들이 흩어져 방치되면서 일부 민묘와 공장이 들어서거나 개발로 인해 태봉이 사라지기도 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1970년대부터 행정당국에서는 일부 태실 유적에 주목하여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고, 이후 2023년까지 가봉태실 28개소, 아기태실 120개소의 조선 왕실 태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가봉태실 15개소와 아기태실 7개소는 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원태실지에 복원한 가봉태실은 8개소이며, 아기태실은 5개소뿐이다. 최근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태실 조사와 복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조 태실처럼 복원되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조선 왕실 태실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현재까지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를 통해 복원되어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 하겠다.

Ⅲ. 세계유산의 연속유산 등재를 위한 대상 검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간행한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의하면, 세계유산은 탁

16 예천군에서는 문종과 장조의 가봉태실에 대해 2012년 발굴조사, 2014년 정밀 지표조사, 2015년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2016년 원태실에 복원하였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문효세자와 폐비윤씨 태실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사도세자 태실은 지금까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17 「조선왕실 생명존중사상 보여준 문화유산 '광해군태실', 대구시 지정문화재 지정예고」, 『경북일보』, 2022.08.30.

18 「청주 남성 태봉산 영조 대왕 태실터」, 『충청타임즈』, 2021.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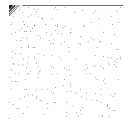
19 「[K-탄생문화 '태실' · (下)] 세계유산화를 위한 과제」, 『경인일보』, 2022.08.26.

20 『世宗實錄』, 卷74, 世宗 18年 8月 8日條.

21 『文宗實錄』, 卷3, 文宗 卽位年 9月 8日條.

22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p.165.

23 『胎封騰錄』, 英祖 乙卯年 3月 初7日 · 3月 14日 · 3月 20日 및 『春官通考』, 卷68 嘉禮 胎峯.



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OUV)이라고 명시되어 있다.²⁴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0가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할 때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동시에 세계유산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와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²⁵ 그렇다면 조선 왕실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등재 논리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등재에 기본적인 사항인 유산의 보호와 관리 요건으로 세계유산위원회는 ① 법률, 규제, 계약을 통한 보호 대책, ②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경계, ③ 완충구역, ④ 관리체계, ⑤ 지속 가능한 활용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²⁶ 상기 조건에 부합하거나 조정이 유리한 대상은 문화재로 지정된 태실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가봉태실은 15개소이며, 아기태실은 7개소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태실에는 국가의 문화재보호법과 광역시·도의 문화재 보호조례 등에 따라 문화재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대상구역 등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 법과 제도에서는 해당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반드시 현상변경을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태실은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거나 조정 가능한 것으로, 조선 왕실 태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우선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⑤의 조건에서는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유산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유산의 이해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존, 관리, 활용의 연대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⁷ 이러한 사례는 성주군에서 기존의 참외 축제를 세종대왕자 태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생명 문화축제로 확대 개편한 것이나, 2007년 이후 태봉안 재현행사를 서울 경복궁과 성주 생명 문화축제의 주행사로 개최한 것 등이 있다.²⁸ 또한 2021년 재개관한 예천박물관에서는 태실의 상설 전시와 답사, 교육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⁹ 게다가 2022년부터 가평군에서는 중종대왕 태봉문화제를 개최하여 태향아리 전시와 주민들과 함께 안위제를 재현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³⁰ 따라서 ⑤의 조건은 지역의 관심과 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태실의 복원 이후 세계유산 등재 후보 지역민들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의하면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가 진정성을 검토하는 실질적 토대라고 제시한다. 상기 운영지침의 진정성에 대한 조건으로는 ㉠ 형태와 디자인, ㉡ 재료와 물질, ㉢ 용도와 기능, ㉣ 전통, 기법, 관리체계, ㉤ 위치와 주변 환경, ㉥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 정신과 감정, ㉧ 다른 내부와 외부 요소, ㉨ 진정성과 관련한 고고학적 유구와 역사적 건물 또는 지구의 복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³¹ 즉, 해당 유산은 구

24 문화재청, 2019,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pp.48~49.

25 문화재청, 2019, 위의 책, pp.45~65.

26 문화재청, 2019, 위의 책, pp.56~65.

27 문화재청, 2019, 위의 책, pp.64~65.

28 박재관, 2022,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과정과 과제」, 『태봉·태실의 세계유산 가치성 연구』, 경기문화재단연구원, pp.9~10.

29 예천박물관 <https://www.ycg.kr/open.content/museum/>(검색일 2022.12.29).

30 「제1회 중종대왕 태봉문화제 오는 30일 개최」, 『기호일보』, 2022.09.22.

31 문화재청, 2019, 위의 책, pp.52~53.

체적인 사료, 발굴조사, 학술연구 등을 통해 엄격하게 고증되고 이와 연관된 유·무형의 유산을 조사 연구한 후 복원·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문화재로 지정된 가봉태실 15개소와 아기태실 7개소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몇 가지 조건을 적용하면, 연속유산의 대상은 축소된다. 먼저 ㉓의 조건으로 살펴보면 해당 유산이 태봉의 돌혈에 있는 것은 가봉태실 8개소, 아기태실 5개소만이 해당한다.³² 또다시 13개소를 대상으로 ㉔의 조건을 적용하면,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를 통해 엄격한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은 문종태실, 폐비윤씨태실, 인종태실, 문효세자 태실로 가봉태실 3개소, 아기태실 1개소만이 해당한다.³³ 대표적으로 명종태실 바닥에 얇은 돌을 깔아 복원한 것이나 세종대왕자 태실에 난간석을 두른 것은 의궤를 비롯한 다른 기록물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원형과 다르게 복원한 사례라 하겠다. 이처럼 조선 왕실 태실은 오랜 기간 훼손과 방치된 후 최근에 주목된 유산이라는 점에서,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진정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세계유산위원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진정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선 왕실 태실의 예외적인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훼손된 것이라는 점, 조선 왕실의 쇠망과 함께 관리주체가 사라진 점 등의 조건이 고려될 수 있다. 조선 왕실 태실은 태조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왕실 자손들의 태

를 일정한 절차와 격식에 따라 조성한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태봉등록』, 『춘관통고』, 『조선왕조의궤』 등을 비롯한 기록물과 태봉도, 각석문 등이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일제강점기 54개소에서 이봉된 태향아리와 태지석 등의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개별 태실에 적용한다면,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를 통해 다수 태실의 추가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개별 태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하여 진정성 있는 복원과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면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성의 조건 검토는 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정도, ㉒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큼 적절한 규모, ㉓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제시되어야 한다.³⁴ 이를 토대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태실과 수호 사찰의 관계, 태실 조성 이후 금표, 화소 구역 지정 등이 누락되었거나 소략하여 신청 유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하였다.³⁵ 이러한 의견은 조선 왕실의 개별 태실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고, 개별 태실마다 조성 조건이 다르기에 일률적인 양식이라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예천군에 위치한 5곳의 조선 왕실 태실에는³⁶ 사찰

32 그 대상으로는 문종태실, 단종태실, 세조태실, 폐비윤씨태실, 인종태실, 명종태실, 경종태실, 순조태실로 가봉태실 8개소이며, 울산 경숙 왕후 태실, 밀양 조선 성종 왕녀 태실, 월산대군 이정 태실, 청주 산덕리 태실, 예천 문효세자 태실로 아기태실 5개소이다(김희태, 2021, 『조선왕실의 태실』, 휴먼스토리, pp.155, 172, 174, 189, 220, 243).

33 淸州大學校博物館 淸原郷土文化研究會, 1997, 『淸原 山德里 胎室 發掘調査 報告書』; 대동문화재단연구원, 2012, 『성주 태종·단종태실 학술(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성림문화재단연구원, 2014, 『예천 명봉사 조선왕조 태실(문종·장조) 유적』; 예천군: 동원건축사사무소, 2015, 『명봉리 조선왕실 태실유적 복원 기본설계 및 종합정비 계획』, 1; 예천군: 교남문화유산, 2017, 『사적 제444호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보존관리계획 보고서』; 성주군: 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2018, 『영천 인종태실 학술조사 보고서』; 영천시: 한빛문화재단연구원, 2019, 2020, 『(보물 제1976호)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충청남도 서산시.

34 문화재청, 2019, 위의 책, pp.52~53.

35 문화재위원회, 2020, 위의 글, p.31.

36 예천에 소재한 태실은 문종 태실, 폐비윤씨 태실, 장조 태실, 문효세자 태실, 오미봉 미명 태실로 가봉태실 3곳, 아기태실 2곳이다.



이 있는 곳이 4개소, 금표가 있는 곳이 2개소, 그리고 5곳의 태실 모두 화소 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³⁷ 이처럼 한 지역의 사례만 보더라도 수호 사찰, 금표, 화소 구역 등은 태실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 왕실 태실은 태봉의 돌혈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공통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즉, 태봉의 돌혈에 위치해 유지되고 있는 태실은 조성 조건의 진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조선 왕실 태실의 완전성 논의를 진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태실에 관한 연구 축적을 통해 조선 왕실 태실의 보편적인 구성요소를 찾아 등재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 태실은 세계유산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과 유사한 측면과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조선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태실은 왕릉과 같이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고, 조상숭배 및 효 사상의 유교 이념에 따라 지속해 관리된 시설물이었다.³⁸ 나아가 조선 왕실은 왕릉과 같이 태실에서도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나타냈다. 다만 조선 왕릉은 일제강점기부터 궁능부에서 관리되어 40기가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데 반해 태실은 관리주체의 부재로 대부분 훼손되어 남아 있는 수가 적으며, 남아 있는 태실 상당수가 원태실지가 아닌 곳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조선왕릉은 능, 원, 묘 가운데 왕과 왕비의 무덤만을 대상으로 연속유산의 대상으로 선정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 왕실 태실에서도 조선왕릉과 같이 왕과 왕비의 것으로 대상을 좁히고, 유적의 환경, 구성, 배치 등을 유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유산의 완전성을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10가

지 가운데 1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세계유산으로서 등재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성주군에서 세계유산 잠재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에 대해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는 기준 (iii) 관련, 신청유산이 국가 의례화된 장태문화의 문화적 전통을 입증하는 유산으로 가치는 인정된다고 하였다.³⁹ 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출생 의례와 관련해 '태'에 대한 인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나, 길지를 선택하고 의례를 통해 지하에 매장하는 풍습은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임

- 특히 가봉태실은 국왕과 국가의 정당성 담보를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주목되는데, 가봉태실 운영은 조선왕조 쇠망과 함께 사라진 전통임

상기 내용은 조선 왕실 태실 모두가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범위의 타당성, 비교연구의 적절성,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기타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조건들은 유산의 본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역에서의 노력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3가지 조건만을 대입하여 조선 왕실 태실의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37 사찰과 관련된 태실을 연관을 지으면 용문사-폐비윤씨태실, 문묘세자태실, 명봉사-문종태실, 장조태실이며, 금표가 있는 곳은 용문사에 위치한 2개소의 태실이다.

38 이재완, 2016, 위의 글, 국립문화재연구원, pp.78~80.

39 문화재위원회, 2020, 위의 글, p.31.

표 3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주요 조건을 적용한 조선 왕실 태실 구분

요구조건	충족 대상	주요 기준
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부동산인 조선 왕실 태실 148개소와 서삼릉	기준(Ⅲ)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2. 유산의 보호와 관리요건	문화재로 지정된 가봉태실 15개소와 아기태실 7개소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3. 진정성	문화재로 지정된 태실 가운데 태봉의 돌혈에 위치하고 있는 가봉태실 8개소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복원가능하고 문화재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 가봉태실	원태실지에 복원된 사례, 발굴조사,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한 복원
4. 완전성	서삼릉, 성종태실을 포함한 태실 유적의 전수조사와 개별 태실 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연구 필요	수호사찰, 금표, 화소 구역 등 보편적 구성요소 조사

〈표 3〉과 같이 연구자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주요 조건을 적용하여 연속유산 등재 가능한 대상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만 부합하는 대상으로 연속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다. 그렇다면 연속유산의 등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유산의 보호와 관리요건이나 진정성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등재 논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등재 대상을 가봉태실로 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태실의 진정성 있는 고증과 복원 추진, 미 지정 태실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왕직에 의해 조성된 서삼릉과 표본으로 이설된 성종태실도 조선 왕실 태실의 완전성을 이해하는 유산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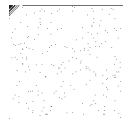
연구자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유산의 보호와 관리요건, 진정성, 완전성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에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 보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다수의 조선 왕실 태실이 철저한 고증 없이 복원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명종 태실 바닥에 얇은 돌을 깔아 복원한 사례나 세종대왕 태실에 난간석을 두른 것은 의궤를 비롯한 어떠한

기록물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태실만이라도 진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하고, 태실 복원을 추진 중인 곳에서도 철저한 고증과 학술조사를 진행하여 복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오늘날까지 발견된 조선 왕실 태실의 현황을 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적용하여 연속유산 등재가 가능한 대상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 왕실 태실은 돌혈이라는 독특한 지형에 아기의 태를 묻고 그 위에 석물을 조성한 아기태실과, 이에 격식을 추가한 왕, 왕비, 추존왕의 가봉태실로 나뉜다. 이러한 태를 처리하는 장태문화는 인류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 왕실처럼 국가적으로 장태를 의례화한 사례는 다른 민족이나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의 쇠망과 함께 왕실의 장태문화도 사라졌다.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는 54기의 태실을 대상으로 그 아래에 안치된 태향아리와 태지석 등을 서삼릉으로 집장했고, 이 과정에서 원 태실지가 훼손되었다. 이후 조선 왕실의 모든 태실은 관리주체의 부재로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시설이었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파괴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였다.

1970년 조선 왕실 태실 관련 유적인 서삼릉이 처음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 이래로 태실과 관련한 유구와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태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재로 신규 지정하고 승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나아가 성주군에서는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을 세계유산의 잠재목록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실 태실은 이왕직에 의해 훼손된 후 대부분 원형을 잃은 채 파괴된 것이었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급한 복원이 진행된 문화재였다.



2020년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신청된 세종대왕자 태실을 검토했던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에서는 성주 태실의 단독 등재 방식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포한 조선 왕실 태실로 확대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대상에 해당 지역의 태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동산 가운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산의 보호와 관리, 진정성, 완전성의 조건을 토대로 연속 등재 대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를 등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화재인 태실 22개소가 그 대상이 된다. 둘째,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봉태실로 한정하고, 연구조사와 학술고증을 통해 복원과 문화재 추가 지정이 가능한 태실을 그 대상으로 본다. 셋째, 조선 왕실 태실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일제강점기 이왕직에 의해 조성된 서삼릉과 표본으로 이설한 성종태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이 많으며, 이 가운데에는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설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태실 이설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추가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도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과 지정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개별 태실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진정성 있는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발견된 조선 왕실 태실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에 필요한 대

상을 선별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만을 적용하여 세밀한 논의와 전개가 부족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요구하는 진정성, 완전성, 보존관리 등의 세부 분야만을 중점적으로 적용한 태실의 개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국내 지정 문화재의 진정성 있는 복원과 조선 왕실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보고서 및 자료

- 『文宗實錄』.
- 『宣祖修正實錄』.
- 『世宗實錄』.
- 교남문화유산, 2017, 『사적 제444호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보존관리계획 보고서』, 성주군.
-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성주 태종 · 단종태실 학술(지표)조사 결과보고서』.
- 동원건축사사무소, 2015, 『명봉리 조선왕실 태실유적 복원 기본설계 및 종합정비 계획』 I, 예천군.
- 문화재위원회, 2020,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문화재청, 2019,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박재관, 2022,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과정과 과제』, 『태봉 · 태실의 세계유산 가치성 연구』,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4, 『예천 명봉사 조선왕조 태실(문종 · 장조) 유적』, 예천군.
- 심현용, 2010, 『성주지역 태실과 생명문화관 전시방안』,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관 콘텐츠 및 전시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 세미나』, 성주군.
- 예천군, 2015, 『명봉리 조선왕실 태실유적 복원 기본설계 및 종합정비 계획』 I.
- 淸州大學校博物館 淸原郷土文化研究會, 1997, 『淸原 山德里 胎室 發掘調査 報告書』.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2020, 『(보물 제1976호)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충청남도 서산시.
- 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2018, 『영천 인종태실 학술조사 보고서』, 영천시.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9,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8, 『조선왕실의 태봉』,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희태, 2021, 『조선왕실의 태실』, 휴엔스토리.
- 예천박물관 편, 2021,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민속원.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편, 1999, 『조선의 태실』 I · II · III.

논문

- 김만중, 2001, 『강릉 모전리 정북태실비와 성종의 자녀에 대하여』, 『박물관지』 7, 강원대학교박물관.
- 김영진, 1994, 『충주 경종태실 소고: 변작과 복원을 중심으로』, 『박물관보』 7, 청주대학교박물관.
- 김영진, 1997, 『청원 산덕리 태실 발굴조사 보고』, 『박물관보』 10, 청주대학교박물관.
- 김태일, 2012, 『조선 초기 왕실의 태실 연구: 경북 성주지역 태실 21기를 중심으로』, 『백악논총』 7, 동방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박대운, 2010, 『조선 성종 태봉의 풍수지리적 특징 비교: 초장지와 이장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박대운, 2012, 『조선시대 국왕태봉의 풍수적 특징 연구』, 『한국문화』 59,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박채은, 2008, 『성종대왕과 후궁 명빈김씨: 경숙옹주 태실과 관련하여』, 『울산문화연구』 1, 울산문화연구원.
- 박충환, 2015, 『인류학의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본 장태문화(藏胎文化)』, 『嶺南學』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심현용, 2001, 『울진지역 태실에 관한 시고』, 『고문화』 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심현용, 2004, 『광해군태실에 대하여』, 『강원문화사연구』 9, 강원향토문화연구원.
- 심현용, 2005, 『대구 광해군태실 고』, 『향토문화』 20, 대구향토문화연구소.



참고문헌

- 심현용, 2005,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연구」, 『박물관연보』 2, 강릉대학교박물관.
- 심현용, 2006, 「조선시대 아기태실비의 양식과 변천」, 『미술자료』 75, 국립중앙박물관.
- 심현용, 2010, 「조선왕실 태실석함의 현황과 양식변천」, 『문화재』 43(3), 국립문화재연구소.
- 심현용, 2012,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문화재』 45(3), 국립문화재연구소.
- 심현용, 2014, 「조선 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조성과 구조 복원」, 『영남고고학』 68, 영남고고학회.
-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 윤석인, 2000, 「조선왕실의 태실석물에 관한 일연구: 서삼릉 이장 원 태실을 중심으로」, 『문화재』 33, 문화재관리국.
- 윤석인, 2010, 「조선왕실 태향아리 변천 연구」, 『고문화』 7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이재완, 2013, 「경북 예천지역 태실에 관한 일고찰」, 『고궁문화』 6, 국립고궁박물관.
- 이재완, 2016, 「예천지역 왕실의 태실조성과 지역사적 의의」, 『문화재』 49, 국립문화재연구원.
- 최호림, 198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일연구」, 『한국학논집』 7,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 홍성익, 1998, 「강원지역 태실에 관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 홍성익, 2004, 「원주시 대덕리 태실에 대하여」, 『강원문화사연구』 9, 강원향토문화연구회.
- 홍성익, 2008, 「홍천 공작산 정희왕후 태실지 위치비정」, 『강원문화사연구』 1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신문기사 및 잡지

- 『기호일보』
- 『경북일보』
- 『경인일보』
- 『충청타임즈』

누리집인터넷 검색자료

- 문화재청 www.cha.go.kr(검색일 2022.11.30).
- 예천박물관 <https://www.ycg.kr/open.content/museum/>(검색일 2022.12.29).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Joseon's Royal Placenta Chambers for Successive Registration in World Heritages Listings

LEE Jaewan Director, Yecheon Museum

a1111@korea.kr

Abstract

The World Heritage Subcommitte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ch examine The World Heritage Subcommitte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ch The World Heri The World Heritage Subcommitte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ch examined the Placenta Chamber of King Sejong's Princes applied for the world heritage priority list in 2020 recommended expanding it to the royal placenta chambers of Joseon distributed nationwide for successive registration instead of registering the Seongju placenta chamber only. On account of that, the issue of selecting items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opics to be discussed in th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s. Accordingly, this researcher investigated the subjects of successive registration based on such conditions as excellent universal value, herit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authenticity, and completeness among the real estate cultural properties demanded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First, 22 placenta chambers, the real estate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and protected and manag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subject to it. Second, it seems that placenta chambers that can be restored through research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and become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can additionally be added. Third, items such as the Seosamneung Royal Tombs built by Lee Wang-jik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r Seongjong Placenta Chamber relocated as an example to realize the completeness of Joseon's Royal Placenta Chambers can be included as well.

Meanwhile, many of the items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are not in the original location, and they can be divided into those that were relocated for the intentions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ose that were not. Therefore, the researcher insists that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add items with which we can understand the historicity in the relocation of placenta chamb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lso to quickly designate those that have not been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yet. Therefore, regardless of designation as cultural heritage, local governments must promote both restoration and designation and strive to include them in the list of successiv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s grounded on thorough historical investigation. Moreover, to add them to the list of successiv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mote continuous research and genuine restoration of individual placenta chambers.

Keywords World Heritage, Serial Properties, Joseon Royal Placenta, Dolhyeol, Outstanding Universal Value

Received 2023. 12. 31. | Revised 2023. 1. 13. | Accepted 2023. 8. 18.

